

2019년 설날 가정예배 순서

2월 5일(화)

● 예배 준비

1. 설 가정 예배는 추모예식을 겸할 수 있습니다.
2. 가족 중 한 분(가장이나 연장자)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3. 성경은 함께 읽거나 교독하셔도 좋습니다.
4. 예배 후, 고향의 추억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묵상기도(예배기원) / 인도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 6:4,5)”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② 신앙고백(사도신경) / 다같이

③ 찬송 /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또는 가족 찬송 선택

④ 기도 / 말은이 (상황에 따라 생략해도 됩니다.)

⑤ 성경봉독 / 시편 132편 13~18절 (구약 900면 / 가족이 합독합니다.)

⑥ 말씀 / 인도자

<말씀 :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리는 시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의 내용은 무엇이며,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먼저, 132편 앞부분에 보면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수 많고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부단히 애썼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평생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계를 모실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은 살아생전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요구를 거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거처로 삼고자 하십니다.(13절)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쉴 곳이며 거주하실 장소입니다.(14절) 하나님은 성전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고 그들을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15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그들은 즐거이 외칠 것입니다.(16절)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을 모시는 곳,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그토록 사모하고 갈망했지만 지을 수 없었던 그 성전이 오늘날 우리에게서 이미 주어졌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완전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셨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곳은 어디나 성전이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요 2:19~21) 둘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3:16)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가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작은 일에 집착하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은 설날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사할 조건이 아주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감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게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머무실 것이고,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⑦ 말씀 후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멀리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전인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며 평안하고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⑧ 찬송 /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또는 가족 찬송 선택

⑨ 주기도 / 다같이